"지역사회 신뢰받는 밑거름이 복지불사"

총무원장 자승스님, 제3교구 시설 방문
반야원 상락원 등 종사자·이용자 격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전국 교구본사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지역복지불사를 전개하고 있는 제3교구본사 신흥사 관내 복지시설을 잇따라 방문하고 이용자와 종사를 격려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일 신흥사가 속초시내에 운영하는 노인전문복지타운인 '반야원'(관장 김정훈)을 찾아 이용자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했다. 신흥사복지재단(이사장 우송스님, 신흥사 주지)이 지난 1996년부터 103억원을 투입해 조성한 반야원은 대지면적 1만3863㎡(4193평), 건축면적 8542㎡(2584평) 규모로 반야노인요양원, 반야주간노인복지센터, 반야노인전문요양원, 반야실비노인전문요양원, 반야실비노인요양원, 반야노인복지센터, 반야방문목욕센터 등 다양한 노인전문복지시설이 들어서 있다.

반야원은 140여 명의 종사자들이 230여 명의 입소 어르신들의 건강과 노후복지 증진을 위해 24시간 돌보고 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반야원 내 시설 곳곳을 살펴보며 만나는 어르신들의 손을 맞잡고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어르신들도 두 손을 모아 합장한 채 총무원장 스님을 반겼다. 전귀덕 할머니는 "성당에 다니긴 하지만 큰스님께서 직접 이런 곳까지 찾아주셔서 정말 반갑고 고맙다"며 반가움을 표했다. 또한 총무원장 스님은 복지시설 종사자들과도 악수를 나누며 "힘들더라도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어르신을 모셔달라"는 당부를 잊지 않았다.

반야원을 살펴본 총무원장 스님은 자리를 옮겨 신흥사복지재단 산하 반야어린이집(원장 이명훈)과 속초시노인종합복지관(관장 묘근스님)을 잇따라 방문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신흥사복지재단 산하 시설들을 돌아본 뒤 가진 차담을 통해 "불교가 지역사회에서 존경받고 신뢰받는 밑거름이 바로 사회복지불사인 만큼 지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신흥사복지재단 이사장 우송스님은 "재단 산하 복지시설 종사자 모두가 지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방심하지 않고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신흥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신흥사복지재단 산하 복지시설을 방문한데 이어 양양 낙산사가 운영하는 낙산사복지재단(이사장 법인스님) 산하 노인요양시설인 '상락원'(원장 우성스님)과 주간보호시설인 '낙산노인복지센터'를 찾아 이용자와 종사자를 격려했다.

총무원장 종책특보단장인 낙산사 한주 정념스님은 "총무원장 스님이 제안하신 자성과 쇄신을 위한 5대 결사에 앞장서고 나눔결사에 소홀함이 없도록 어르신을 잘 모시겠다"고 말했다.

속초·양양=박인탁 기자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지난 1일 신흥사복지재단 산하 반야어린이집을 찾아 원생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김형주 기자 cooljoo@ibulgyo.com

출재가자 필독서 '선가귀감' 지안스님 목소리로 듣는다

패엽회 금요강좌 개설

조계종 고시위원장 지안스님〈사진〉이 출재가자들을 위해 〈선가귀감〉을 강의한다. 출재가가 함께 모여 공부하는 모임인 패엽회(회장 진주하)는 오는 15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7시 서울 종로 두산위브 836호 열린선원에서 지안스님을 강사로 〈선가귀감〉을 배운다.

이번 강의는 지안스님이 〈선가귀감〉을 강설한 것을 묶은 책 〈마음속 부처찾기〉를 교재 삼아, 한문구절을 읽고, 이에 대해 해설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서산휴정(1520~1604)스님이 쓴 〈선가귀감〉은 선의 요체를 설명한 책이다. 휴정스님은 선어록 가운데 선수행의 귀감이 될 중요한 어구를 발췌하고 여기에 스님의 견해를 덧붙여 책을 완성했다. 책은 선수행 외에도 간경, 염불, 주력 등 불교수행 전반을 다루고 있어, 강원 교재로 활용돼 왔다. 지안스님은 "불교수행 전반적 체계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놓은 선가귀감은 승속을 막론하고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라며 "이 책을 일독함으로 부처님 말씀과 행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패엽회는 서울불학승가대학원(전 불교서울전문강당) 졸업생이 주축이 돼 시작된 공부모임이다. 지난 4년간 지안스님으로부터 〈금강경오가해〉를 비롯 〈대승기신론〉 〈능엄경〉 〈서장〉 등을 공부하고 있으며, 경전공부를 희망하는 사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어현경 기자 eonaldo@ibulgyo.com

"수목원 설립은 곧 생명결사 실천"

총무원장 스님
故 김재일 대표 유족과 함께
국립수목원 방문

최근 종단 차원에서 불교수목원 설립을 위한 준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고(故) 김재일 사찰생태연구소 대표의 49재 날인 지난 2일 포천 국립광릉수목원을 방문했다.

이날 수목원 방문은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수목원을 함께 방문해 보자는 김재일 사찰생태연구소 대표의 제안을 잊지 않고 고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뤄지게 됐다. 또 환경위원회 위원들과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듣고, 불교수목원 설립 사업에 따른 전체적인 기반환경과 기초자료 등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날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한 방문객들은 김용하 국립수목원장과 직원들의 안내로 약 두 시간 동안 수목원 구석구석을 돌아봤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수목원 설립을 위해 불교계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 가야 하는가에 대해 꼼꼼히 물어보는 등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불교계가 10여 년 전에 수목원에 관심을 가졌더라면 좋았을 텐데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부터라도 차근히 준비해 간다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며 "수목원이 설립되면 사찰림을 관리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하 원장은 이에 "전통사찰에는 역사가 오래된 사찰림과 숲을 보유하고 있어 타 단체와 비교했을 때 설립이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며 "불교계가 수목원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그동안 우리나라에 없었던 인도지역 식물도 들여와 타 수목원과 차별화를 둘 수 있을 것"이라며 "식물이 갖고 있는 의미에 따른 이야기를 만들어 국민들에게 소개한다면 불교를 쉽게 이해하는데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고 김재일 대표의 사위 하태진 씨가 약 두 시간 내내 김 대표의 영정사진을 들고 다녀 눈길을 끌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도 하 씨와 김 대표의 딸 김미선 씨의 손을 잡아주며 따뜻한 위로를 건넸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이날 수목원 설립이야말로 종단에서 추진하는 생명결사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길이라는 뜻을 밝혔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생물과 사찰림을 보존하는 것이 생명결사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조채희 사찰생태연구소 사무국장에게 연구소 지원금으로 2000만원을 전달했다.

앞으로 조계종 환경위원회는 불교수목원 설립 준비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전국 교구본·말사로 확대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방문에는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해 사회부장 혜경스님 등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스님, 제8교구본사 직지사 주지 성웅스님, 환경위원장 장명스님, 이병인 부산대 교수, 이영경 동국대 교수, 윤여창 서울대 교수, 신준환 국립산림과학원 박사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포천=홍다영 기자

우란분절 특별강연

국제선센터

서울 국제선센터(주지 현조스님)는 오는 8월15일(음력 7월15일) 우란분절(백중)을 맞아 특별초청강연회를 개최한다.

우란분절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강연회는 7일 오후7시30분 서울 정수사 주지 지월스님이 '우란분절 신행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법문으로 시작된다. 이어 14일에는 제2교구본사 용주사 주지 정호스님이 '불교에서 바라보는 효(孝)사상', 8월11일에는 서울 상도선원 주지 미산스님이 '진정한 웰빙과 웰다잉' 등을 주제로 각각 강연한다.

또한 오는 17일 오후1시 2층 큰법당에서 정신과 전문의인 박성봉 국제포교사를 강사로 초청해 '인터넷에 빠진 아이와 어른들, 어떻게 해야 하나-현대인의 정신 건강과 종교'를 주제로 열린시민강좌도 개설한다. 박인탁 기자

현장에서

한겨레 '짜맞추기' 기사 없었나

박인탁 기자
parkintak@ibulgyo.com

"세계적인 영화배우 리차드 기어의 산사체험 취소가 티베트 인권호소에 한국불교가 귀를 닫았기 때문이다(?)"

한겨레신문은 지난 6월30일자 '티베트 인권 알리러 온건데…영화 이야기만 물어본 조계종'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리차드 기어는 티베트 인권을 알리기 위해 방한했지만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한 한국불교는 이를 무시한 채 영화이야기로만 일관해 이를 갑갑하게 느낀 리차드 기어가 통도사 산사체험 등의 일정을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상은 티베트 인권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리차드 기어의 방한 목적 자체가 오는 24일까지 열리는 사진전 '순례의 길'을 홍보하고 휴가를 겸해 가족들과 함께 한국불교문화를 체험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특히 사진전을 여는 목적도 중국으로 탄압받는 티베트의 인권을 알리기 위함은 아니었다. 리차드 기어가 산사체험 등의 일정을 취소한 이유는 사실 한국 언론의 과도한 취재경쟁이 화근이었다. 리차드 기어는 자신의 일정에 따라 쫓아다니는 수십 명의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에 손사래를 쳐야만 했고 부인과 아들을 노출시키는 것을 원치 않았다. 지난 6월21일 총무원장 스님과의 면담도 양해를 구하고 비공개로 급하게 전환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리차드 기어는 공개된 일정을 취소한 대신 서울 진관사를 비공식적으로 찾아 3시간동안 한국불교문화를 체험했다.

리차드 기어는 한국을 떠나면서 "다음에는 꼭 조용히 한국을 찾아 한국불교를 깊게 체험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티베트 인권을 무시한 한국불교 지도자의 언행이 문제였다면 리차드 기어는 이런 말을 남기지 않았을 것이다.

한겨레신문의 이번 짜맞추기식 억지 기사는 조계종을 얕잡아 본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사실' 보다는 '의도'를 가진 기자의 짜맞추기식 기사로 여론을 호도하는 일은 여론의 뭇매를 맞기 마련이다.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이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길 기대해본다.